

상태가 주요 암의 건강불평등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과 성별 불평등, 그리고 결혼상태 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3년간의 시계열로 보았을 때도 뚜렷히 나타났다. 향후 주요 암 관리정책에 있어 사회경제적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SPM-104

성인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미충족의료 연구

Unmet Need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BPH) in Community-based Survey of Elderly Men

김한해¹⁾, 박혜숙²⁾, 이훈재³⁾, 권성원⁴⁾, 허영주⁵⁾, 정유진⁶⁾, 문옥륜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4)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5)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사과, (6) 양천구 보건소

목적: 연령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립선비대증은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그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남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립선비대증은 조기발견·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 남성들은 전립선비대증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노령화에 따른 경제 능력도 저하되어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전립선비대증의 유병률과 의료이용률을 파악하여, 전립선비대증의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선정된 서울시 양천구 지역의 50세~80세 성인 남성인구 1,021명을 대상으로 검진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검진을 통하여 밝혀진 하부요로증상과 전립선비대증의 유병률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의료필요를 규명하고, 실제 의료이용실태와 미충족의료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전체 641명이 전립선비대증 역학조사에 참여하였으며(참여율 62.8%), 이 중 경증 이상의 하부요로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이용여부에 관한 조사에 충실히 응한 경우는 501명(78.2%)이었다. 경증 이상의 하부요로증상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경우는 105명(21.0%),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396명(79.0%)이었고,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5.9%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로증상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석 결과, 연령이 높고,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며, 전용주거면적이 좁고, 용돈이 적고, 경제상태를 '보통이하'라고 생각할수록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각증상의 시작 시기가 비교적 짧고, 중증도가 경하며, 자가인식 건강상태나 배뇨관련 삶의 질이 좋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로증상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상태, 자각증상 시작시기, 그리고 배뇨관련 삶의 질이 유의한 변수로 남았다.

한편, 검진 결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되었으면서 의료이용여부에 관한 조사에 충실히 응답한 116명 가운데에서는 병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6명(31.0%)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80명(69.0%)이었다. 전립선비대증이 있으면서도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서도 하부요로증상만 가진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60.3%를 차지하였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전용주거면적이 좁고(교차비 4.19, 95%신뢰구간 1.68-10.46),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교차비 2.71, 95%신뢰구간 1.10-6.69)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하부요로증상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세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의료이용에는 경제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을 조기발견·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KSPM-130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요인 분석

Factors affecting organ donation for brain dead people

문옥륜¹⁾, 이철형¹⁾, 김귀현¹⁾, 황보혜민¹⁾, 김진희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뇌사자의 장기기증 건수의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증가시켜서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첫째, 뇌사자의 유족지원방안과 그에 대한 지원기금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둘째, 생체이식 및 사후 장기의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이며, 셋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고찰방법으로 우리나라 장기기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하고, 외국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 국내외 문헌과 법령안등을 검색해서 심층 분석하는 방법이다. 둘째, 설문 조사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 81명과 수혜자 54명, 그리고 장기이식대기자 79명으로 총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으로써 일반인 253명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 설문자료를 SPSS 10.0 statistics package를 이용하여 기초 통계 뿐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장기기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면접방식으로 KONOS 직원들과 이식관련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부분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회견형식으로 수집하였다.

결과: 첫째, 뇌사판정기준의 인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는 대상자(p-value = 0.001)와 사회단체참여여부(p-val-

ue=0.029)의 두 변수이다. 이때 R^2 는 0.253이다. 둘째,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상자(p-value=0.001), 성별(p-value=0.016), 교육(p-value=0.023)의 변수로 나타났다. 이때 R^2 는 0.154이다. 셋째, 자신이 뇌사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기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상자(p-value=0.012)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때 R^2 는 0.078이다. 넷째, 가족이 뇌사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기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자신의 뇌사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자(p-value=0.012)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때 R^2 는 0.154이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뇌사 기증자 유족 지원금 인상, 장기기증카드 제도의 실시, 장기제공방안 및 기증자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방안, 그리고 뇌사기증자에 대한 추모뇌사 장기기증자에 대한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비를 세우는 방안들을 통해 정부는 유족지원제도의 확대 실시하여 보다 많은 뇌사자들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KSPM-131

북한이탈주민이 본 북한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연구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viewed by North Korea refugees

문옥륜¹⁾, 이철형¹⁾, 백지은¹⁾, 윤채현¹⁾, 김동식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료이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들이 본 북한의료제도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는데 있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3년 6월-12월간 「하나원」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는 설문조사를 목적으로 한 연구의 대상으로는 2003년 6월-12월까지 총 6차례 「하나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조사가 가능하였던 2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직접면접을 기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사항, 질병보유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같은 건강상태, 의료이용경험, 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을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실정에 맞게 변형된 문항을 추가하였다. 모든 연구자료는 SPSS for Windows Release 1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인식도, 만족도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태도 등을 일차적으로 빈도를 기술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영상황 인식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병원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료제도 중 의사담당제를 74% 정도가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유무는 연령, 성,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중 20% 정도만이 담당의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의료이용 후 약 80% 정도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45% 정도가 의료비 이외의 비용 및 물품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기타 비용 및 물품 지불여부는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병원 이용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는 매우 강했다. 이것은 북한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북한 정부가 보건의료 재정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되면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재정투자의 감소에 따른 병원시설의 현대화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조차도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병원서비스가 질적으로 매우 열악해져 북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KSPM-135

손상으로 인한 소아 사망에 대한 연령별 변이와 사회경제적 요인의 연관성

The effect of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on the death from injuries in children

박주옥¹⁾, 황승식²⁾, 김창엽³⁾, 문옥륜³⁾

(1)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최근 손상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각국에서 손상의 발생 양상과 그 요인을 밝히는 것을 무척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아 사망의 제 1원인이 손상에 의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 소아에서 발생하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규모와 실태를 국제적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둘째, 손상으로 인한 소아의 사망에 대한 연령별 변이를 분석하며 셋째, 사회 경제적 위치와 손상으로 인한 소아의 사망의 위험성간에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출생 및 사망 자료를 근거로 하여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출생한 소아에 대한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관찰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을 ICECI(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xternal causes of injury)에 의해 재분류하여 각 기전별, 연령별 사망률을 구하였다. 출생 자료를 근거로 아버지의 직업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출생지역의 박탈여부, 십대부모 유무에 따른 손상으로 인한 소아 사망의 위험비를 분석하였다.

결과: 관찰기간동안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총 28.06건/10만 인년이었고 이중 비의도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26.08건/10만 인년이었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손상 사망률을 나타냈으며, 손상의 기전별로는 운송수단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